

대한양계협회 소식



육계의무자조금

대의원 총회 서면결로 관리위원, 감사 최종 확정



지난 2005년 말부터 진행한 육계의무자조금 대의원총회가 의족수 부족으로 4차례나 무산됨에 따라 육계의무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농협,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에 나섰다.

관리위원 선출 건에 대한 투표 조사를 위해 우편 접수와 함께 최대한 많은 의견이 수렴하기 위해 공동준비위원회 3단체는 각 지역별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직접 방문, 서면결의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90명이 결의하여 찬성 89표, 반대 1표로 관리위원 및 감사가 최종 확정되면서 자조금 사업 추진에 활력을 얻게 되었다.

▲ 자조금 관리위원 및 감사 최종 명단

최길영(경기), 유광식(강원), 이준동(충북), 김용

주(충남), 한병권(전북), 박주석(전남), 김국록(경북), 이상정(경남, 제주), 함경섭(중계), 소삼(재래닭), 김의겸(감사), 봉호진(감사)

‘SI’ 오해와 진실 보도파문 철새축제 앞두고 군산시에 공식항의

본회는 지난 13일 전북 군산시가 개최하는 ‘제4회 군산세계철새축제’와 관련한 홍보기사 ‘SI’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군산시가 철새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배포한 자료가 일반인들이 SI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명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계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충남 천안과 충북 청원의 하천에서 채취한 철새의 분변에서 H5N1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철새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왔으나 모두 전염성이 약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문구를 내보냈으며, 오히려 밀집된 형태로 키워진 가금류에서 발병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 바 있다

채란분과위원회 무항생제인증제도 문제점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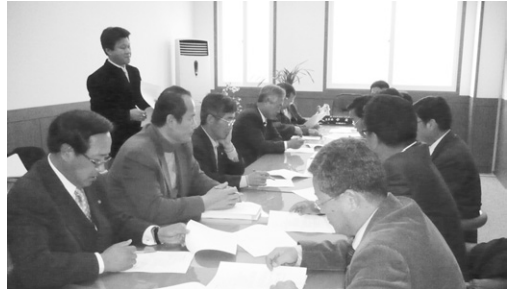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 11월 월례회의가 지난 6일 본회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항생제인증제도 폐지 건의와 관련하여 재차 논의되었다. 산란계는 법적으로 산란 전 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증을 받기위해서 높은 인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현실에 전혀 맞지 않고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농장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항생제가 첨가된 것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며 정부와 농관원에 무항생제인증제도 폐지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통계자료 분석과 산란계 해외선진지 견학 진행사항 보고, 산란계자조금사업 진행사항 보고, 산란계자조금 대군업자 간담회 개최예정 보고 등이 있었다.

육계분과위원회 의무자조금 서면결의 결과 보고

육계분과위원회 월례회의가 지난 21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청풍명계 가공공장에서 개



최되었다.

이날회의에서는 지난 15~20일에 있었던 의무자조금 서면결의 결과 상정된 관리위원 및 감사(안)에 대해 찬성 89표, 반대 1표로 통과되어 육계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완료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차후 농림부에 의견을 제출기로 하였다.

종계D/B추진협의회 자료 신뢰도 강화방안 논의

종계D/B추진협의회가 지난 8일 본회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계DB조사를 통해 축적된 자료검토에서는 보다 정밀한 수치의 조사를 통해 자료 신뢰도를 높여 농가의 자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한편 이날 보고사항에서는 종계DB출장자회의를 개최하여 출장자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보고체계 재정비, 출장애로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10월부터 발행한 종계DB구축사업 소식지 500부가 농가 및 관계부처에 배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위생방역대책위원회 최근 질병현안 논의



위생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선중)가 지난 11월 6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선중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최근 중요시되는 질병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1현안 논의에서는 현장에서 다발하고 있는 질병동향 분석과 함께 최근 복합적인 질병감염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정확한 진단과 정부로의 보고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2현안으로 HPAI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살처분 범위 축소, SI 진성 판정기관 확대, 소독제 라벨 표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추가발생 예방을 위해 3km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 경우가 많아 인력확보, 비용발생 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되면서 살처분 범위를 발생지역 500m내로 축소하되 차단방역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언급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긴급행동지침(SOP)에서는 살처분 범위가 발생지역 500m내로 축소, 실시할 것으로 검역원 관계자가 밝혔다.

이밖에도 제3현안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와 관련 이번 유해사료 범위 축소, HACCP 농장 실시에 따른 준비사항, 무항생제 실시에 따른 문제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관련내용 85페이지)

산란업 발전을 위한 좌담회 산란계 자조금 협조 독려



지난 8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전국 산란계 대군업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산란업 발전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해 자조금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007년도 산란계자조금사업으로 총 6억원을 목표로 TV광고 및 라디오 광고, 요리강습 및 시식회 등 소비홍보사업과 지도자 연수회 및 선진지 연수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산란계자조금이 중소규모 농장들 위주로 조성돼 왔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한계에 부딪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자조금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군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을 전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국내 3만수 이상 산란계 사육수수는 약 38,000천수로 총 사육수수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인의 날 요리 시식행사 등 소비촉진 행사 벌여

지난 11월 9~11일에 걸쳐 농림부 주최와 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에서 '제 12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거



행했다. 이와 관련 본회에서도 부스를 마련하여 닭고기, 계란으로 만든 요리 및 요리 책자를 선보이며 마들렌, 계란말이 등 시식행사를 벌여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많은 시민들이 부대행사 등을 즐기며 농업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관련기사 164페이지)

[지부소식]

**아산육계지부
닭고기 소비홍보 행사 개최**



아산육계지부(지부장 이일용)는 지난 10월 27~28일 양일간에 걸쳐 아산시농업단체협의회와 아산원에농업협동조합 주관으로 펼쳐진 아산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에서 닭고기 소비홍보 행사를 벌였다.

이날 소비홍보 행사에서 아산육계지부는 아산 지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양념 닭고기를 즉석에서 철판구이 닭고기 요리를 조리하여 시식

행사를 전개하였다.

이일용 지부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닭고기를 협찬해준 (주)하림, (주)해마로식품, (주)성화식품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지부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닭고기 소비촉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진농원 故 손종현 회장
지병으로 별세**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신진농원(신진BHB) 손종현 회장이 지병으로 고생해오다 지난 11월 13일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故 손종현 회장은 1957년 대구 오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부산협동부 회장에 근무하였으며, 1971년 현재의 신진농원을 설립하여 농장을 경영해 왔다. 1986년 세계가금학회 회원으로 활약한 바 있는 손 회장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부산경남지회장과 본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양계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신진농원은 1999년부터는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으로 인증 받으며 우량한 병아리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 정정보도 합니다.

지난 월간양계 2007년도 11월호 235쪽에 실린 “10월 산란계자조금 사업 전개” 기사 중 산란계자조금 납부자 명단에서 ‘이인석’ 님을 ‘이인근’ 님으로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 합니다.

날짜	구분	성명	금액
10/15	송일양계	이인근	5,000,000